

아시아학회 학술지로의 진입 경험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김 재 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기획평가위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부편집장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JGO, www.ejgo.org)는 아시아부인종양학회(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SGO)의 공식 학술지(official publication)로 대한부인종양학회(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KSGO)와 공동으로 발간된다.

대한부인종양학회는 1984년 창립되었고 학회지는 1990년 창간되어 1993년부터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2008년 6월호부터 제호를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로 바꾸고 전면 영문 잡지로 전환하였다. 2009년 5월에 SCIE 색인 대상이 되었고 이후 PubMed, PubMed Central, Scopus, Embase, KoreaMed, KoreaMed Synapse 등 여러 색인 기관에 순차적으로 등재되었다. 학회지가 지향하는 목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부인종양학 분야 잡지가 되겠다'는 것이다. 부인종양 분야의 SCI(E) 잡지 중에 선두적인 학술지로는 1972년 창간되었고 미국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를 기반으로 발간되는 'Gynecologic Oncology(GO)'가 있다. 두 번째 학술지는 1991년 창간되었고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IGCS) 및 European Society of Gynaecological Oncology의 공식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al Cancer(IJGC)'가 있다. 위 세 부인종양학 분야 단체 및 두 종류의 학회지는 북미, 유럽/호주를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8년 당시 아시아 지역 내 각 국가가 자체 발행하는 국내 학회지 이외에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제3의 국제 학회지는 실제로는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부인과종양학회는 그 역사가 대한부인종양학회보다 오래 되었지만 영문 잡지를 내지 않고 있고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도 마찬가지다.

이제 창립 만 3년이 지난 ASGO의 씨앗은 2002년 서울에서 열린 제9차 IGCS 모임에서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이 학회 기간 중에 일본 측 요청으로 부인과악성종양 연구기구 (Japanese Gynecologic Oncology Group, JGOG)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 측 단체 간의 모임이 열리게 되었다. JGOG는 부인암 관련 임상시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단체로 당시 한국에는 이에 대응하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대한부인종양연구회 (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 KGOG)가 결성되었고 이 후 매년 일본, 한국을 오가며 Korea-Japan Gynecologic Cancer Joint Meeting(GCJM)이 열리고 있다(shuttle meeting). 회의가 거듭되면서 이 모임을 아시아지역의 부인종양학회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8년 11월 서울에서 제7차 Korea-Japan GCJM과 더불어 ASGO 창립 모임이 열리기에 이르렀다.

JGO는 이미 2006년 9월호부터 전 세계 300여 기관에 학회지를 무료 배포하고 있었는데 명문화 이후 각 국의 유력인사를 포함하여 배포 범위를 더욱 넓혔다. 2009년 5월 SCIE 색인 이후에는 이 점을 잡지 표지에 명기하고 IGCS, ESGO, 일본산과부인과학회(Jap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일본부인종양학회(Japna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중국부인종양학회(Chinese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대만부인종양학회 (Taiwanese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태국부인종양학회(Thailand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아태산부인과학회(AOFOG)에 직접 참석하든지 혹은 여의치 않으면 해당 학회사무국과 접촉하여 JGO 100권 내지 500권을 항공 우편으로 미리 보내 학회장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한편으로 ASGO 활동을 JGO 지면에 적극 반영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대표가 구성원인 창립 모임에서 각국 대표가 발표한 부인암 역학 자료를 JGO 2009년 3월호/6월호에 'Current Status of Gynecologic Cancer in Asia'라는 주제로 종설을 수 편 게재하였다. 2009년 5월 SCIE 색인 잡지가 된 후에 ASGO 이사회 구성원(council member) 모두를 JGO 편집이사(editorial board)에 위촉하였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종설 (review), 학회 참석 보고(meeting report) 등의 글을 집필하도록 의뢰하였다. 또한 각국 대표에게 해당국 국내 학회 광고 파일을 제출토록 요청하여 무료로 게재하였다.

2009년 11월로 예정된 제1차 ASGO 학술대회(biennial meeting) 광고를 JGO 6월호부터 겹표지 안쪽 면에 무료 게재하였고 'ASGO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ASGO 초대 회장의 글을 초청 게재하였다. 2009년 12월호에는 동경에서 동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ASGO 학술대회 보고를 대만 대표에게 집필 의뢰하여 게재하였다. 2010년 3월호에는 제1차 ASGO 학술대회에서 축하 강연을 한 미국 NCI 소속 Ted Trimble 박사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에서 ASGO는 IGCS, ESGO와 같은 기존의 부인종양 관

런 국제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7 Sister Organizations'의 하나로 소개되었다. 이런 활동 끝에 영문화 이후 2년, SCIE 색인 포함 1년여 만에 2010년 7월 개최된 ASGO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학회 공식 잡지로 채택되었다.

아직은 여러 면에서 JGO가 GO 또는 IJGC와 경쟁하는 학술지라고는 볼 수 없다. 게재 논문 수(total number of papers), 관련 학회의 역사와 활동상에도 차이가 현저하다. GO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부인종양분야에서 작성한 논문이 JCO, JNCI, Lancet, NEJM 등 최상급 잡지에 게재할 정도가 아니라면 우선 투고를 고려하게 되는 잡지이다. GO에 게재 거절된 경우 IJGC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판 Journal Citation Reports 자료상 GO는 산부인과 잡지 77개중 IF 3.760으로 5위, IJGC는 최근 다소 부진해 IF 1.558로 42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부인종양 연구자들이 GO, IJGC를 포함한 여러 유명 잡지에 발표하는 논문 수를 생각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JGO는 내년 중에 첫 번째(2011년) IF를 얻게 된다. 아마도 1점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JGO 중기 목표는 IF는 2점 이상, 30위 이내의 잡지, 아시아 지역의 부인종양 전공자가 가장 선호하는 잡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격월간으로 개편하고 게재 논문 수도 점차 늘리려고 한다. 편집 수준 향상을 위해 편집진의 확대 구성 및 훈련, 외국 출판사와의 협력도 고려하고 있다. 좋은 잡지란 결국 해당 분야 연구자, 정책결정자, 학생 등이 공감하고 흥미를 갖는 시의 적절한 논문과 기사가 실려야 한다. 아시아가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듯 신생 학회 ASGO의 성장과 함께 공식 학술지인 JGO도 동반 성장하여 아시아를 넘어 부인종양 연구의 주된 무대 (one of the main platform)가 되려고 한다.